괴테의 『파우스트』에서 언급된 의학

글 | 이 광 _ 계명대학교 화학과 명예교수 klee179@kmu.ac.kr

프랑크푸르트 구시가(舊市街)에 있는 괴테의 상

독일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대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1749~1832)가 전생애를 바쳐 완성한 불후의 대걸작 『파우스트』 제1부는 오랜 연구 생활에 지쳐버린 늙은 교수 파우스트의 참담한 독백으로 시작된다.

아아, 나는 이제 철학도
법학도 의학도
심지어 신학까지도
열심히 노력해서 연구를 끝마쳤다.

문호 괴테의 출생지로 널리 알려졌으며, 18세기까지는 국왕의 선거 및 대관식이 거행되던 곳이었다

중세 유럽의 대학에서 개설했던 전공과목이었던 철학, 법학, 의학, 신학은 당시 학문의 전부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별히 '의학'을 언급한 것을 보면 주인공 파우스트 교수는 의학자인 것이 분명하다. 이미 쉰 살을 넘긴 주인공은 오랜 연구 생활에 심신이 지쳐버린 상태였다. 괴테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파우스트』의 주인공 파우스트 교수가 사실은 괴테 자신을 묘사한 인물이고, 괴테는 주인공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파우스트와는 달리 학구파인 바그너는 파우스트가 이미 포기해 버린 지식을 연구하는 일에 몰두한다. 양피지로 만든 고문서를 통해서 역사와 문헌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에 끈질기게 노력한다. 그런 바그너는 파우스트에게 이렇게 말한다.

아아 ! 예술은 길고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저는 비판적인 연구에 힘쓰고 있습니다만
가끔 머리와 가슴속이 불안해집니다.
모두 근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을
얻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처음 두 구절은 의성(醫聖) 히포크라테스의 『잠언』에 나온 구절을 순서를 거꾸로 소개한 것이다. 라틴

어로 작성된 『잠언』의 첫부분은 "*Vita brevis, ars longa, occasio praceps, experientia falax, judicium difficile*"이다. 영어로 옮기면 "Life is short, the art long, opportunity fleeting, experience treacherous, judgment difficult"가 되고, 흔히 우리말로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며, 기회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경험은 믿을 수 없으며, 판단은 어렵다"고 해석된다.

오늘날 우리가 '예술'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art'는 사실 르네상스까지는 일종의 기예(技藝) 또는 기술(技術)을 뜻하는 말이었다. 흔히 예술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라틴어 'ars'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이 아니라 산술, 기하, 천문 등의 학술 분야와 여러 가지 실용적인 기술들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였다. 'art'가 오늘날과 같이 아름다움(美)과 관련된 우리의 활동을 뜻하게 된 것은 18세기 이후부터였다. 오늘날 우리는 'art'는 '예술', 'technique'는 '기술'을 뜻하는 것으로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잠언』의 첫구절에 나오는 '*Vita brevis, ars longa*'의 본래 의미는 의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술'(*ars*)을 충분히 수련해서 익히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은 것이 안타깝다는 뜻이었다. 사람들이 질병을 치료하는 의술을 익히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강조하는 표현이었다. 괴테의 작품을 살펴보면 자연주의자였던 괴테가 히포크라테스의 사상에 깊은 감명을 받고 공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문장들이 발견된다. 괴테의 또 다른 대표작인 『빌헬름 마이스터의 도제(徒弟) 시절』의 제7권 9장에는 신부가 빌헬름에게 준 두루마리로 된 수업증서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Die Kunst ist lang, das Lebenkurz, das Urteil schwierig, die Gelegenheit fluchtig ……"라는 구절도 역시 히포크라테스의 『잠언』 첫부분을 그대로 독일어로 옮겨 놓은 것이다.

(파우스트) 그러나 나는 해보겠다!
(메피스토펠레스) 그것은 듣던 중 반가운 말이군요!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시간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히포크라테스의 『잠언』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흥미롭다. 부엌에 등장한 마녀를 묘사한 『파우스트』 제1부 6장에도 히포크라테스와 관련이 있는 구절이 있다. 메피스토펠레스가 "좋습니다! 그것은 돈도 의사도 마술도 필요 없는 치료법입니다"라고 말한다. 결국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자연이고, 의사의 역할은 단순히 병든 사람을 보호하는데 지나지 않는다(Natura sanat, medicus curat)는 히포크라테스의 사상을 뜻하는 대사다.

『파우스트』 제2부 1막 '아름다운 지방'에는 파우스트가 망각의 강 레테에서 길어온 물로 머리를 식힌 후에 원기를 회복하는 장면이 있다. 아마도 괴테가 사람의 뇌가 정신작용의 핵심이고, 인간의 생명 활동에 공기와 물과 장소가 반드시 필요하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물로 목욕하는 방법을 즐겨 사용했던 히포크라테스의 주장을 연상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괴테는 1795년에 히포크라테스의 『질병론』과 『공기, 물 및 토지에 대하여』를 탐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우스트』 제2부 1막 '밝게 불이 켜진 방들'에서 메피스토펠레스는 "아가씨, 그러나 내가 밟는 것은 좀더 큰 뜻이 있어요. 무슨 병이든 같은 것끼리 고치는 거예요. 발은 발이 고친다는 식으로 말이지요. 온몸의 어느 부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여자의 발을 비명을 지를 정도로 아프게 밟고 나더니 "이제 나았을 겁니다"라고 말한다. 이런 유사 치료법은 히포크라테스가 처음 주장했던 것으로, 1810년 하네만(1775~1843)에 의하여 다시 주장되었던 것이다. 괴테는 히포크라테스의 유사 치료법에도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